

고1과 모의고사

고등학교 첫 해와 성적표 읽는 법

- ◆ 이 책은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공개된 요강·공시 자료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1부 · 고1 한 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정하나 · 6편

2부 · 모의고사

어떤 시험이고 성적표를 어떻게 읽나 · 6편

1 부

고1 한 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정하나

고1 3월에 무엇이 달라지나

첫 중간고사

고1 성적이 대입에 어떻게 쓰이나

고1 가을에 정하는 것

무너지는 아이를 어떻게 보나

고1 1년 달려

2 부

모의고사

어떤 시험이고 성적표를 어떻게 읽나

학평과 모평은 다른 시험입니다

성적표 읽는 법

3월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6월·9월이 무거운 까닭

오르내림을 어떻게 읽나

내신과 모의고사가 다를 때

64 · 차례

무엇이 어디에 있나

1. 01 고1 3월에 무엇이 달라지나 7
2. 02 첫 중간고사 12
3. 03 고1 성적이 대입에 어떻게 쓰이나 17
4. 04 고1 가을에 정하는 것 22
5. 05 무너지는 아이를 어떻게 보나 27
6. 06 고1 1년 달력 32
7. 07 학평과 모평은 다른 시험입니다 37
8. 08 성적표 읽는 법 42
9. 09 3월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47
10. 10 6월·9월이 무거운 까닭 52
11. 11 오르내림을 어떻게 읽나 57
12. 12 내신과 모의고사가 다를 때 62

01 · 머리말

이 책을 왜 드리나

저희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료입니다.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시 정보는 넘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과 파는 말이 섞여** 있어서, 학부모님이 그것을 가려내는 데 시간을 다 쓰십니다. 그 상태로 상담에 오시면 **첫 시간을 오해를 푸는 데** 씁니다.

이 책을 읽고 오시면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과의 상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나눠 드리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책 곳곳에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원을 늘리지 마시라는 말, 이걸 상담 없이 집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 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자료라야 나머지 말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에는 출처를 달았고, 없으면 안 썼습니다.

이 책의 숫자는 **공개된 모집요강·공시 자료·국가 통계**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각 편 끝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자리는 **「저희 판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다르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구분해 두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CUBE

2026년 8월

02 · 먼저 읽을 것

첫 해와 첫 성적표

이 책은 두 가지를 묶었습니다 — 고등학교 첫 해와 모의고사 성적표.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고1 3월에 둘이 함께 옵니다. 새 학교의 첫 시험이 3월 학평이니깐요.

고1에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넷입니다 — 성적을 세는 법, 시간표, 결정할 것, 그리고 견주는 사람.

중학교는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고, 고등학교는 비슷한 성적끼리 모입니다. 중학교에서 상위권이던 아이가 첫 시험에서 중간쯤이 되는 일이 아주 흔하고, 실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인 집단이 달라진 것입니다.

모의고사도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학평은 주로 재학생만 보고, 6월 모평부터 졸업생이 들어옵니다. 6월에 등급이 밀리는 것이 보통인데, 그걸 모르고 아이를 다그치는 일이 매년 있습니다.

두 부의 차례

부	무엇을	이 부의 물음
1부	고1 한 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정하나
2부	모의고사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읽나

1부는 학년 초에, 2부는 성적표를 받으실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1부의 다섯째 편(무너지는 아이를 어떻게 보나)은 성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라 한 편을 따로 두었습니다.고1은
힘들어하는 아이가 가장 많은 학년

이 책이 하지 않는 것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3월 학평은 재학생만 보고 배운 데까지만 나오는 시험이라 거기서 대학을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컷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시험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 「왜 미리 알 수 없는가」를 대신 적어 두었습니다.

03 · 먼저 사실부터

네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다릅니다. 3월에 네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 성적을 세는 법, 시간표, 결정할 것, 그리고 견주는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	성취도(A~E) 중심	등급이 함께 매겨집니다
시간표	학교가 정합니다	일부는 골라 들었습니다
졸업	출석	192학점
견주는 사람	같은 학교	같은 학교 — 그런데 모인 아이가 다릅니다

맨 아랫줄이 3월에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중학교는 동네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고등학교는 비슷한 성적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상위권이던 아이가 고1 첫 시험에서 중간쯤이 되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실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인 집단이 달라진 것입니다.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내 및 2022 개정 교육과정(2026년 8월 기준). 2025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 운영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04 · 성적을 세는 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고등학교 성적표에는 숫자가 여럿 나옵니다. 중학교 성적표와 생김새가 다릅니다.

칸	무엇을 말하나
성취도	A~E — 내가 얼마나 아는가(절대평가)
석차등급	1~5등급 — 남과 견줘 어디쯤인가(상대평가)
원점수 · 평균 · 표준편차	우리 반이 어땠는지
수강자 수	몇 명 중 몇 등인가의 분모

둘째 줄이 중학교와 가장 다른 자리입니다. 남과 견주는 숫자가 성적표에 찍힙니다.

맨 아랫줄도 놓치지 마십시오. 수강자가 적으면 한 등급에 들어가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등급이 달라집니다 — 따로 다른 편(G2)이 있습니다.

학점이 붙습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학점이 붙습니다. 졸업하려면 192학점이고, 학점을 받으려면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중학교에는 없던 조건입니다. 결석이 쌓이면 학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성적 표기와 이수 기준은 학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05 · 시간표와 반

담임이 다 보지 못합니다

중학교에서 「우리 반」은 하루를 같이 보내는 무리였습니다. 고교학점제로 과목을 골라 듣게 되면서 그 뜻이 달라졌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같은 반이 같이	과목마다 구성이 달라집니다
담임	거의 다 봅니다	일부만 봅니다
이동	거의 없습니다	교실을 옮겨 다닙니다

둘째 줄이 부모님께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담임이 아이의 모든 수업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부모님께 닿는 경로가 중학교보다 성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하실 일

성적표와 학생부를 직접 보시는 것입니다.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면 늦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한 번이면 됩니다. 학생부는 학년도가 끝나면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 L7에서 다룬 자리입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한 번은 이야기하십시오. 담임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 만큼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반 편성과 이동 수업 운영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06 · 그래서 무엇을

3월에 하실 일과 점검표

시기	무엇을
3월	겪게 두십시오 — 아이도 적응 중입니다
4~5월	첫 중간고사 — 성적보다 방식을 봅니다
여름	안 되는 한 과목을 메웁니다
가을	2학년 과목을 정합니다

첫째 줄을 특히 부탁드립니다. 3월에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하는 중이고, 이때 다그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고1 3월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고등학교 성적표에 **석차등급** 이 찍힌다는 것을 아는가
- ☐ 졸업에 **192학점** 이 필요한 것을 아는가
- ☐ 학점에 **출석과 성취율** 두 요건이 있는 것을 아는가
- ☐ 담임이 **모든 수업을 보지 못한다** 는 것을 아는가
- ☐ 아이가 **이동 수업** 에 적응하고 있는가
- ☐ **결석·지각** 이 쌓이고 있지 않은가
- ☐ 중학교 때 방식이 **통하고 있는지** 물어봤는가
- ☐ 3월 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일곱째가 고1의 실제 갈림길입니다. 중학교 방식이 안 통하는 아이가 많고, 그걸 1학기에 고치면 3년이 다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고1은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이 가장 많은 학년**이기도 합니다. 바뀌는 것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3월에 잘 안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이 1학기 내내 이어지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3월에는 지켜보시고, 5월에는 물어보십시오.

07 · 자주 묻는 것

고1 3월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중학교 때 잘하던 아이가 고1에서 무너졌습니다.

가장 흔한 일이고,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집단이 바뀐 것입니다. 중학교는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고, 고등학교는 비슷한 성적끼리 모입니다. 실력은 그대로인데 등수가 밀린 것입니다. 이걸 고칠 수 없고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둘은 방식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중학교는 범위가 좁아 반복하면 됐는데, 고등학교는 범위가 넓고 깊이가 달라 그 방식이 안 통합니다.

둘을 가르치는 법은 간단합니다. 「시험 범위를 다 봤는데도 안 나왔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다 보고도 안 나왔으면 방식이고, 다 못 봤으면 시간입니다.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Q. 고1부터 학원을 늘려야 할까요?

늘리기 전에 지금 것이 되고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고1에 흔한 일이 과목 수만큼 학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혼자 하는 시간이 중학교보다 더 필요합니다. 범위가 넓어 수업만으로는 안 소화됩니다.

학원을 늘리면 혼자 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게 고1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라고 봅니다.

기준을 하나 드리면 — 배운 것을 스스로 복습할 시간이 하루에 있는가입니다. 없으면 학원을 늘리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3월에 정하지 마십시오. 한 학기를 보고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고1 3월에는 **성적을 세는 법·시간표·졸업 조건·모인 아이**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3월에는 판단하지 마시고 5월에 물어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 운영과 성적 표기는 학교·학년마다 다릅니다.** 읽는 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08 · 먼저 사실부터

견줄 것이 없는 첫 시험

고1 첫 중간고사는 한 해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성적표입니다. **견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성적과는 **모인 아이가** 다르고, 앞으로의 성적과는 **아직 견줄 것이 없습니다.**

이 시험으로	알 수 있나
우리 아이 위치	대충은
3년 내신의 방향	아직 아닙니다
공부 방식이 통하는가	여기가 핵심
어느 과목이 문제인가	보입니다

셋째 줄이 첫 시험의 진짜 쓸모입니다. 등수보다 「어떻게 준비했고 그게 통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신은 회복이 됩니다. 남은 학기가 다섯입니다. 한 번의 시험이 3년을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교육부 성적 산출 기준(2026년 8월 기준). 학교마다 시험 방식과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09 · 성적표 읽는 법

등급보다 먼저 볼 것

내신 성적표에는 한 과목마다 숫자가 여럿입니다. 어느 칸을 보느냐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칸	무엇을 말하나	먼저 볼까
원점수	내가 받은 점수	아니오
과목 평균	우리 학교가 어땠나	예
표준편차	얼마나 벌어져 있나	예
성취도	내가 얼마나 아는가	예
석차등급	남과 견줘 어디쯤	나중에

원점수와 평균을 함께 보십시오. 원점수 70점이 평균 50점인 시험에서 나온 것과 평균 80점인 시험에서 나온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표준편차가 크면 학생들이 넓게 흩어진 것이고, 작으면 다들 비슷하게 본 것입니다. 표준편차가 작은 과목은 한두 문제로 등급이 크게 갈립니다.

성취도와 등급을 함께 보십시오

「A인데 3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들 잘한 과목입니다. 「B인데 1등급」도 나옵니다 — 다들 어려운 과목입니다.

두 경우의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은 **내용은 아는데 경쟁에서 밀린 것**이라 손덜 자리가 적고, 뒤는 **경쟁에서는 앞섰지만 내용이 덜 채워진 것**이라 다음 학년에서 그 자리가 드러납니다.

출처: 교육부 성적 산출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성적 표기 항목은 학년과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10 · 등급을 볼 때

수강자 수를 함께 보십시오

등급은 남과 견준 것이라 「**몇 명 중에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내신은 **5등급**이고 누적 비율이 이렇습니다.

등급	누적 비율	뜻
1	10%	상위 10%
2	34%	여기까지 누적
3	66%	//
4	90%	//

9등급제 값(1등급 4%)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금은 1등급이 10%입니다.

수강자가 적으면

비율이 같아도 인원이 줄어듭니다. 수강자 20명이면 1등급이 두 명입니다.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립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처럼 수강자가 적은 과목은 등급이 됩니다. 성적표에서 수강자 수를 꼭 함께 보십시오.

이건 **아이 타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따로 **다른 편(G2)**에서 셈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2028 대입개편 확정안의 성적 산출 기준. 2028 대입개편 확정안(교육부) 및 공개된 등급 산출 기준. 2025년 고1부터 적용.

11 · 그래서 무엇을

첫 시험 뒤에 하실 일

차례	무엇을	왜
1	며칠 두십시오	그날 저녁은 가장 아픈 날입니다
2	평균·표준편차와 함께 봅니다	등급만 보면 어긋납니다
3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어봅니다	여기가 첫 시험의 쓸모입니다
4	한 과목만 고쳐 봅니다	여러 개는 안 됩니다

3번에서 물으실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언제부터 준비했어?」, 「범위를 몇 번 봤어?」, 「모르는 건 어떻게 했어?」
 답을 들으시면 대개 원인이 보입니다. 성적표에는 안 나오는 것이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첫 중간고사 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평균 과 함께 봤는가
- ☐ 표준편차 를 봤는가
- ☐ 성취도와 등급 을 함께 봤는가
- ☐ 수강자 수 를 봤는가
- ☐ 1등급이 10% 인 것을 아는가
- ☐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물어봤는가
- ☐ 범위를 다 봤는지 물어봤는가
- ☐ 고칠 것을 하나로 좁혔는가

일곱째가 가장 많이 갑니다. 범위를 다 못 보고 시험을 본 아이가 첫 시험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건 실력이 아니라 계획의 문제이고 고치기 쉽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첫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으신 날, 그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아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아픈 날입니다. 며칠 뒤에 성적표를 놓고 「어떻게 준비했어?」로 시작하십시오. 등수로 시작하면 대화가 거기서 끝나고, 방식으로 시작하면 거기서 시작됩니다.

12 · 자주 묻는 것

첫 중간고사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첫 시험이 3년을 정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남은 학기가 다섯입니다.

다만 「잘 안 바뀐다」고 느껴지는 까닭은 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면 결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첫 시험이 3년을 정한다」가 아니라 「첫 시험 뒤에 고치느냐가 3년을 정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학기마다 쌓이는 것이라 뒤로 갈수록 전체 평균을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일찍 고칠수록 값이 큼니다.

1학년 1학기가 가장 고치기 좋은 자리입니다.

Q. 시험 범위를 다 못 봤다고 합니다.

첫 시험에 가장 흔한 일이고, 가장 고치기 쉬운 일입니다.

중학교는 범위가 좁아 며칠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같은 방식으로 못 끝냅니다.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간 계산 문제입니다.

고치는 법도 분명합니다 — 시험 몇 주 전부터 시작할지를 정하고, 범위를 날짜로 나눠 두는 것입니다.

다음 시험에서 한 번만 제대로 해 보면 아이가 스스로 압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겪는 것이 고1 1학기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고 봅니다.

성적은 그다음에 따라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첫 시험은 등수가 아니라 방식을 보는 자리입니다. 평균·표준편차·수강자 수를 함께 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성적 산출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마다 시험 운영과 성적 표기가 다릅니다.

13 · 먼저 사실부터

여섯 학기 가운데 둘입니다

「고1 성적이 대입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물음입니다. 대입에 쓰이는 내신은 대개 고1 1학기부터 고3 1학기까지 다섯 학기이고, 고1은 그중 둘입니다.

학기	대입에	언제 정해지나
고1 1학기	들어갑니다	1학년 7월
고1 2학기	들어갑니다	1학년 12월
고2 1·2학기	들어갑니다	2학년
고3 1학기	들어갑니다	수시의 마지막
고3 2학기	수시에는 대개 안 들어갑니다	—

그래서 「고1이 5분의 2」 라고 흔히 말합니다. 적지 않은 무게입니다.

다만 대학마다 반영 학기와 반영 교과가 다릅니다. 학년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건 요강에 적혀 있고, 여기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출처: 수시 모집요강의 학생부 반영 방법(2026년 8월 기준). 반영 학기·교과·가중치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 반드시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14 · 그런데

전 과목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시는 자리입니다. 대학은 「전 과목 평균」을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이 하는 방식	어떻게
반영 교과를 정합니다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만 등
계열에 따라 다릅니다	인문은 국·영·사, 자연은 국·수·영·과 등
일부만 셉니다	상위 몇 과목만 반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중치를 둡니다	특정 교과에 더 큰 무게

그래서 학교에서 받은 「전 과목 평균」과 대학이 계산한 값이 다릅니다. 같은 학생부를 놓고도 대학마다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과목에서 낮은 성적이 있어도 그 대학에서는 안 세어집니다.

그러니 고1에 하실 일

지금 반영 교과를 알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1에 지망 대학이 정해진 경우가 드물고, 요강도 해마다 바뀝니다.

대신 「전 과목 평균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 것」 만 아셔도 됩니다. 평균이 낮아도 주요 교과가 괜찮으면 자리가 있습니다.

출처: 수시 모집요강의 학생부 반영 방법. 반영 교과와 계산 방식은 대학·전형마다 다릅니다.

15 · 학종은 또 다릅니다

등급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등급을 셈하는」 전형(학생부교과)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부종합은 셈하지 않습니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내신	계산합니다	읽습니다
보는 것	등급	학생부 전체
고1이 낮으면	평균에 남습니다	흐름을 봅니다

맨 아랫줄이 고1 부모님께 중요한 자리입니다. 학종은 고1이 낮았다가 올라간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뭉개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2026학년도 입결을 센 바로는 같은 학과에서 학종의 합격선이 교과보다 낮은 경우가 87%였고, 0.5등급 넘게 갈리는 자리가 51%였습니다.

그러니 고1이 아쉬웠다면 학종 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 그게 조건입니다.

출처: 2026학년도 전형결과 1,845개 학과 짝을 건준 집계. 컷을 공개한 곳만 센 것이며 개별 학과 값은 신지 않습니다.

16 · 그래서 무엇을

고1에 하실 판단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보십시오
고1 1학기가 아쉽다	네 학기가 남았습니다 — 아직 이릅니다
한 과목만 크게 낮다	반영 교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과목이 고르게 낮다	방식을 봐야 합니다
1학기보다 2학기가 올랐다	학종에서 읽히는 흐름입니다

맨 아랫줄이 고1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보다 올라가는 흐름이 읽히기 쉽습니다.

그러니 고1 1학기가 아쉬웠다면 2학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성적이라도 「내려간 뒤」와 「올라간 뒤」가 다르게 읽힙니다.

고1 성적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고1이 다섯 학기 중 둘 인 것을 아는가
- ☐ 고3 2학기는 수시에 대개 안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가
- ☐ 전 과목 평균이 그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가
- ☐ 학종은 계산이 아니라 읽는 것임을 아는가
- ☐ 1학과 2학을 견뎌 봤는가
- ☐ 낮은 과목이 고르게인지 하나인지 봤는가
- ☐ 고1 성적으로 대학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 ☐ 학생부가 채워지고 있는가

여덟째를 함께 보십시오. 내신이 아쉬울수록 학생부가 중요해집니다. 둘 다 비면 고3에 쓸 카드가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고1 성적표를 들고 「이제 어느 대학까지 되나요」를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 답을 못 드립니다. 남은 학기가 네 개이고,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고, 학종은 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1에 답할 수 있는 물음은 「무엇을 고칠 것인가」 뿐이고, 그건 성적표가 아니라 아이에게 물어야 합니다.

17 · 자주 묻는 것

고1 성적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고1 성적이 나쁘면 수시는 어렵나요?

학생부교과는 어려워집니다. 학종은 다릅니다.

교과는 등급을 계산하니 낮은 학기가 평균에 남습니다. 네 학기를 아주 잘해야 만회됩니다.

학종은 학생부를 읽습니다. 고1이 낮았다가 올라간 흐름은 오히려 읽히기 좋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수능최저가 없는 자리도 있고 논술도 있습니다. 수시가 교과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학종을 쓰려면 학생부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고1에 성적이 아쉬웠다면 학생부 쪽을 더 챙기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게 남은 카드입니다.

Q. 1학기 와 2학기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대학이 계산할 때는 대개 같습니다. 학기마다 가중치를 두는 대학이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뜻에서 2학기가 더 중요합니다. 1학기 뒤에 무엇을 고쳤는지가 2학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학기는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시험이고, 2학기는 「고칠 수 있는 아이인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학종에서 읽히는 것도 그 흐름입니다. 같은 3등급이라도 4등급에서 올라온 3등급과 2등급에서 내려온 3등급이 다르게 읽힙니다.

그러니 1학기 결과보다 그 뒤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가 고1에서 가장 큰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고1은 다섯 학기 중 돌이고, 전 과목 평균이 그대로 쓰이지 않으며, 학종은 계산하지 않고 읽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요강과 전형결과 집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반영 학기·교과·가중치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개별 학과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

18 · 먼저 사실부터**가을에 3년이 정해집니다**

고1 가을에 2·3학년 과목을 정합니다. 선택 과목은 10월 말 최종 확인서로 확정, 변경은 그 학년 종업식 전까지 이 결정이 3년의 시간표를 정하고, 학생부에 남고, 대학에서 읽힙니다.

시기	무슨 일이
여름~9월	학교가 개설 과목을 안내합니다
9~10월	수요조사 — 여기서 개설이 갈립니다
10월 말	최종 확인서 — 서명합니다
그 뒤	그 학년 종업식 전까지만 변경

둘째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수요조사에서 신청자가 적으면 학교가 그 과목을 안 엽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통신문이 오는 9월이 실제 시작입니다. 10월에 알아보시면 이미 정해진 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이 어디까지 가나

과목은 시간표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부에 「무엇을 들었는지」로 남고, 그 과목의 세특이 과목마다 500자씩 씁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선택과목이 없어지면서 대학이 학생부의 이수 과목을 볼 여지가 커졌습니다. 다만 대학이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 가능성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2026년 8월 기준). 일정과 절차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십시오.

19 · 무엇을 기준으로

네 가지를 봅니다

	기준	어떻게 보니까
1	진로	가려는 계열에 필요한 과목인가
2	선수 과목	앞의 과목을 들었는가
3	감당	주당 시수와 평가 방식은
4	개설	우리 학교에 실제로 열리는가

1번을 「수능 유불리」로 바꿔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수능에 선택과목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 F3에서 다른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는 기준은 「내 진로에 필요한가」입니다. 진로를 못 정했으면 「열어 두는 쪽」으로 고르십시오.

3번을 특히 보십시오

이름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같은 이름의 과목이라도 주당 시수가 다르고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수강자가 적은 과목은 등급이 됩니다.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갑니다 — 이걸 알고 고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강자가 많은 과목만 고르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로에 필요하면 등급이 튀어도 듣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모르고 고르지는 마시라는 뜻입니다.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개설과 평가 방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20 · 아이와 이야기하는 법

진로를 못 정했다면

고1 가을에 진로가 정해진 아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 상태에서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이렇게 물으십시오
「무슨 과 같 거야?」	「어느 수업이 덜 힘들었어?」
「뭐 하고 싶어?」	「뭐 할 때 시간이 빨리 갔어?」
「이게 유리해」	「이거 들으면 뭘 배우는 거래?」

왼쪽 물음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아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답할 수 있는 물음입니다. 지난 1년에 겪은 것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어 두는 쪽」이란

이렇게	왜
이공 과목을 하나 남깁니다	안 들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학을 놓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계열에서 씁니다
한쪽으로 다 몰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안 들었다가 필요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들었다가 안 쓰면 앓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두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 면의 이야기 방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과목 선택은 학교 진로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1 · 그래서 무엇을

가을의 차례와 점검표

시기	무엇을
9월	가정통신문을 봅니다 — 개설 과목 목록
9월	아이와 이야기합니다 — 위의 물음으로
10월 초	학교에 물어봅니다 — 시수·평가·개설 여부
10월 말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셋째 줄을 거르지 마십시오. 「이 과목은 주당 몇 시간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는 학교에 물으면 알려 주는 것입니다.

과목을 정하기 전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수강신청 일정 을 학교에 확인했는가
- ☐ 개설 과목 목록 을 봤는가
- ☐ 수능 유불리가 **기준이 아니라** 는 것을 아는가
- ☐ 선수 과목 을 들었는지 확인했는가
- ☐ 주당 시수와 평가 방식 을 물어봤는가
- ☐ 수강자가 적은 과목 인지 알고 고르는가
- ☐ 진로를 못 정했다면 **열어 두었는가**
- ☐ 아이가 **스스로** 골랐는가

여덟째가 3년을 갑니다. 부모님이 골라 준 과목을 3년 듣는 것과 스스로 고른 과목을 듣는 것은 세특에 적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과목 선택 상담이 **고1 가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 무엇이 개설되는지, 시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바깥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학교 진로 선생님께 먼저 여쭙보십시오. 값을 치르실 자리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22 · 자주 묻는 것

과목 선택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어려운 과목을 고르면 등급이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고민입니다.

수강자가 적고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과목은 등급이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함께 보십시오.

하나, 학생부에는 등급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들었는지도 남고, 세특도 남습니다. 학종에서는 그것이 읽힙니다.

둘, 피해서 고른 과목이 유리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느 과목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리 모릅니다.

그러니 「등급 때문에 진로 과목을 피하는 것」은 확실한 손해를 피하려다 확실하지 않은 이득을 좇는 것일 수 있습니다.

Q.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없습니다.

먼저 수요조사에서 신청해 보십시오. 신청자가 모이면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열리면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함께 여는 과목으로, 다른 학교에서 듣고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학교나 학교 밖 교육도 있습니다. 이런 경로로 들으면 학생부 비고 칸에 그렇게 적힙니다 — 오히려 찾아서 들었다는 기록이 됩니다.

다만 운영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께 여쭙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없다」로 끝내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9월 가정통신문이 시작이고 10월 말 확인서가 마감입니다. 수능 유불리가 아니라 진로로 고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개설·평가 방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23 · 먼저 사실부터

고1에 가장 많습니다

고1은 힘들어하는 아이가 가장 많은 학년입니다. 바뀌는 것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성적을 세는 법, 모인 아이, 시간표, 결정할 것. 그리고 그것이 3월에 동시에 옵니다.

고등학교 전체로 보면 학업중단율이 2020년 1.1%에서 2024년 2.1%가 됐습니다. 중단자 수로는 14,439명에서 27,065명입니다.

학년별로 나눈 공식 표는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1이 가장 많다」를 숫자로 못 보여 드립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보는 것과 학교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 편은 진단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와, 그때 어디로 가시면 되는지만 적었습니다.

왜 이 편을 넣었나

저희는 입시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1 상담에서 성적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성적이 문제가 아니었던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 성적 계획을 세워 드리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를 더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 한 편은 이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입시 자료가 다룰 수 있는 범위의 끝에 있는 편입니다.

출처: 교육부 「2025년 교육기본통계」 학업중단을 표. 「학업중단」은 자퇴만이 아니다. 퇴학·유예·면제·제적을 다 합친 수다. 자퇴만 따로 센 수를 이 표에서는 알 수 없다. 학년별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4 · 무엇이 힘든가

성적만이 아닙니다

같은 「힘들다」에도 안이 다릅니다. 「공부가 힘들다」로 뭉뚱그리면 손덜 자리가 안 보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나
성적	중학교와 달라진 등수 — 가장 눈에 띄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관계	새 학교, 새 아이들 — 이동 수업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몸	수면·식사·두통 — 말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마음	의욕·불안 — 가장 늦게 보입니다

셋째 줄을 먼저 보십시오. 아이는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몸으로 먼저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크게 달라졌거나, 안 먹거나, 자주 아프다고 하면 성적 이야기를 하실 때가 아닙니다.

둘째 줄도 짚어 두겠습니다

고교학점제로 과목마다 교실이 바뀌면서 「우리 반」에 속하는 느낌이 예전보다 열어졌습니다.

어른에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하루의 대부분입니다. 성적보다 이쪽이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이며 의학적·심리학적 진단 기준이 아닙니다. 걱정되시면 전문 기관에 상의하십시오.

25 · 알아차리는 자리

숫자보다 먼저 오는 것

성적표는 늦게 옵니다. 그전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	왜 보십니까
지각·조퇴가 늘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학교 이야기를 안 한다	전에는 하던 아이라면 특히
잠이 크게 달라졌다	늦게 자거나 계속 잔다
주말에 안 나간다	관계 쪽일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첫째 줄이 학교에서도 가장 먼저 잡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출결은 학점과도 걸립니다 — 수업일수 191일이면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말에 유급 대상이 된다(3분의 2 올림)

즉 지각·결석은 마음의 신호이면서 동시에 제도의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맨 아랫줄에 대해

「학교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들으시면 그날 답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도 「그래」도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듣고 싶다」가 그날의 답입니다. 까닭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일이고, 그건 N 시리즈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문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진단이 아니며, 아이마다 다릅니다.

26 · 어디로 가시나

학교 안에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 밖부터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안에 먼저 있습니다.**

어디	무엇을
담임 선생님	학교에서의 모습 — 집에서는 안 보이는 것
학교 상담 선생님	대부분의 학교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마다 있고 무료 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업 중단을 생각할 때

첫째 줄을 먼저 하십시오. 담임 선생님은 집에서 안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학교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자리 배치, 상담 연결, 출결 처리.

「문제 있는 아이로 보일까 봐」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찍 말씀하실수록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걱정되실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지각·조퇴** 가 늘고 있는가
- ☐ **잠과 식사** 가 달라졌는가
- ☐ 학교 이야기를 **안 하게** 됐는가
- ☐ 주말에 **안 나가**는가
- ☐ 성적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를 해 봤는가
- ☐ **담임 선생님** 과 이야기했는가
- ☐ 학교 **상담** 을 알아봤는가
- ☐ 「그만두고 싶다」는 말에 **그날 답하지** 않았는가

다섯째를 권합니다. 집에서 하는 이야기가 성적 이야기뿐이면 아이는 힘들 때 말할 자리가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는 입시를 다루는 곳이고, **이 편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범위의 끝에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시면 입시 상담보다 먼저 **학교와 상담 기관을 찾으십시오.** 성적은 나중에 회복되지만 그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편을 넣었습니다.

27 · 자주 묻는 것

고1 적응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사춘기인지 정말 힘든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저희가 구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도 한 번 보고 구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구분하려 하지 않으셔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도움을 받아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보실 것은 「얼마나 오래」와 「일상이 무너졌는가」입니다. 며칠 안 좋다가 돌아오면 흔한 일이고, 몇 주 이어지면서 잠·식사·등교가 무너지면 다릅니다.

후자라면 구분하려 애쓰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대개 무료입니다.

「아니었다」로 끝나면 그것으로 좋은 일입니다.

Q. 공부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화를 냅니다.

흔한 일이고, 대개 까닭이 있습니다.

아이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안 나온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이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고1은 스스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시기입니다. 답을 모르는데 물으니 화가 납니다.

방식을 바꿔 보십시오. 「왜 안 했어」가 아니라 「뭐가 제일 어려워?»입니다. 앞은 추궁이고 뒤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성적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할 자리가 있어야 힘들 때 말합니다.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고1에서 가장 값이 큰 일일 수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성적표보다 먼저 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 출결·잠·말수. 보시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부터** 하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통계와 **저희 상담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학적·심리학적 진단**이 아니며, 걱정되시면 **전문 기관**에 상의하십시오.

28 · 한 눈에**고1 한 해의 모양**

고1은 「적응하는 학기」와 「정하는 학기」로 나뉩니다. 1학기는 겪는 시기이고, 2학기는 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여름이 가장 값이 큰 자리입니다.

시기	무엇이 있나	무엇을
3월	입학 · 3월 학평	겪게 됩니다
4~5월	첫 중간고사	방식을 봅니다
6~7월	기말고사 · 1학기 성적 확정	학생부를 봅니다
여름	—	한 과목을 메웁니다
9~10월	중간고사 · 수강신청	2학년 과목을 정합니다
11~12월	기말고사 · 학년 마감	학생부를 고칠 마지막
겨울	—	2학년을 준비합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학년도가 끝나면 학생부 정정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및 학생부 기재요령(2026년 8월 기준). 일정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29 · 1학기

겪는 시기

시기	하실 일	하지 마실 일
3월	지켜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4월	시험 준비를 언제 시작하는지 봅니다	대신 계획을 짜 주지 마십시오
5월	성적표를 평균과 함께 봅니다	그날 저녁에 말하지 마십시오
6~7월	학생부 II 를 받아 봅니다	문안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4월 줄을 짊어 두겠습니다. 중학교 방식으로 며칠 전에 시작하면 고등학교 범위는 못 끝냅니다. 그걸 첫 시험에서 겪게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 계획을 짜 주시면 그 학기는 넘어가지만 3년 내내 짜 드려야 합니다.

7월에 하실 일

1학기가 끝나면 학생부 II 를 한 번 받아 보십시오. 세특이 과목마다 있는지, 창체 세 칸이 채워졌는지를 봅니다.

비어 있으면 2학기에 채길 수 있습니다. 학년이 끝나고 보시면 그때는 늦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생부 기재요령. 발급과 확인 방법은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30 · 여름과 2학기

정하는 시기

여름방학이 고1에서 가장 값이 큰 자리라고 봅니다. 1학기에 무엇이 안 됐는지 알게 된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1학기가 이랬다면	여름에
범위를 다 못 봤다	계획 짜는 법을 연습합니다
한 과목이 크게 낮다	그 과목 하나만 메웁니다
고르게 낮다	공부 방식을 바꿔 봅니다
괜찮았다	2학기 범위를 미리 봅니다

둘째 줄의 「하나만」을 지키십시오. 여름에 세 과목을 고치겠다는 계획은 대개 하나도 안 됩니다.

2학기

시기	무엇을
9월	가정통신문 — 개설 과목 목록이 옵니다
9~10월	아이와 과목 이야기 · 학교에 시수·평가 문의
10월 말	수강신청 확인서 — 서명하면 종업식 전까지만 변경
12월	학생부 확인 — 학년도가 끝나기 전 마지막

맨 아랫줄이 12월의 일입니다. 사실과 다른 자리가 있으면 이때 말씀하셔야 합니다.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및 학생부 기재요령. 일정과 절차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31 · 점검표

학기마다 여덟 가지

1학기 — 여덟 가지

- ☐ 3월에 **판단하지** 않았는가
- ☐ 시험 준비를 **언제 시작** 하는지 봤는가
- ☐ 성적표를 **평균·표준편차와 함께** 봤는가
- ☐ **수강자 수** 를 봤는가
- ☐ 범위를 **다 봤는지** 물어봤는가
- ☐ **학생부 II** 를 받아 봤는가
- ☐ 세특이 **과목마다** 있는가
- ☐ **결석·지각** 이 쌓이고 있지 않은가

2학기 — 여덟 가지

- ☐ 여름에 **한 과목** 을 메웠는가
- ☐ 9월 **가정통신문** 을 봤는가
- ☐ 개설 과목의 **시수·평가** 를 물어봤는가
- ☐ 과목을 **진로로** 고르고 있는가
- ☐ 아이가 **스스로** 골랐는가
- ☐ **10월 말 확인서** 날짜를 아는가
- ☐ 12월에 **학생부** 를 다시 봤는가
- ☐ 사실과 **다른 자리** 가 없는가

2학기 마지막 둘이 이 달력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학년도가 끝나면 정정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32 · 마지막으로

고1에 남길 것

	무엇을	왜
1	공부하는 방식	3년 내내 씁니다
2	비지 않은 학생부	고2·고3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3	말할 수 있는 관계	힘들 때 말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성적이 셋 중에 없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성적은 결과이고, 위 셋은 조건입니다.

고1에 이 셋이 갖춰지면 성적은 고2·고3에 따라옵니다. 이 셋이 비어 있으면 성적이 좋아도 오래 못 갑니다.

Q. 고1이 제일 중요한가요, 고3이 제일 중요한가요?

고치기 쉬운 정도로는 고1이 압도적입니다.

고1에는 남은 학기가 다섯이고, 학생부도 두 해가 남았고, 방식을 바꿔도 만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고3에는 내신이 거의 정해졌고, 학생부도 거의 채워졌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수능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장 애를 쓰시는 때는 고3입니다. 고1에는 「아직 시간 있다」 고 두고, 고3에 「이제 큰일이다」 로 오십니다.

순서가 반대면 3년이 훨씬 편합니다. 고1에 애쓰고 고3에 지켜보는 편이 저희가 본 바로는 결과도 낫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1학기는 겪는 시기, 여름은 고치는 시기, 2학기는 정하는 시기입니다. 12월에 학생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마다 일정과 운영이 다릅니다.

33 · 먼저 사실부터

주관도 응시자도 다릅니다

「모의고사 봤어요」라는 한 마디에 사실 두 시험이 섞여 있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와 수능 모의평가(모평)입니다. 주관하는 곳이 다르고, 보는 사람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걸 섞으면 성적표를 잘못 읽습니다.

	학평	모평
누가 냅니까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시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가 봅니다	주로 재학생	졸업생도 봅니다
언제	3·5·7·9·10월 등	6월 · 9월
성격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	수능을 내는 곳이 내는 시험

둘째 줄이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학평은 재학생만, 모평은 졸업생까지. 그래서 같은 실력이라도 학평 등급이 모평보다 좋게 나오는 일이 흔하다.

같은 아이가 같은 실력으로 봐도 두 시험의 등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실력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견주는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시행 공고 및 시·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안내(2026년 8월 기준). 시행 일정과 응시 대상은 해마다·시도마다 다르다.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도 시험마다 다르다.

34 · 학 평

학교가 보는 시험입니다

학평은 입시 기관이 만든 시험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시행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이렇습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시행한다** — 학업성취도 진단,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진로지도가 목적

무엇을 위한 시험인가	뜻
학업성취도 진단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봅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가 수업을 조정하는 데 씁니다
진로지도	상담 자료로 씁니다

「대입 예측」이 목적에 없습니다. 학교가 **지금 상태를 재려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학평 등급을 「내 수능 등급」으로 바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졸업생이 빠진 집단에서 나온 등급입니다.

수능에는 졸업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졸업생은 대체로 준비를 더 한 집단입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등급이 밀릴 수

얼마나 밀리는지는 해마다 다르고 과목마다 다릅니다. 「몇 등급 밀린다」고 딱 잘라 말하는 곳이 있으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출처: 시·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안내. 시행 횟수와 달은 학년과 시도마다 다릅니다.

35 · 모평

수능을 내는 곳이 냅니다

모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채점하고 시·도 교육청이 시행을 관리합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바로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
출제 결	수능과 같은 결로 나옵니다
응시 집단	졸업생이 들어옵니다
난이도 조절	평가원이 수능 난이도를 가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셋째 줄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평가원은 모평 결과를 보고 수능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모평이 어려웠다면 수능은 그보다 쉬울 수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평 난이도로 수능을 짐작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평은 예고편이 아니라 시험 삼아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도 학평보다 가깝습니다

출제 기관이 같고 응시 집단이 수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위치를 재는 데는 학평보다 모평이 낫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을 판단하실 때 보실 것은 6월과 9월 모평입니다. 3월 학평 성적으로 원서를 짜시면 안 됩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시행 공고.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구조에서 짐작한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36 · 그래서 무엇을

어느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험	이렇게 보십시오
3월 학평	출발선 확인 — 겨울에 무엇이 됐는지
6월 모평	수시 방향을 잡습니다 — 졸업생이 들어온 첫 성적
9월 모평	원서 직전 마지막 자료
10월 학평	마무리 점검 — 다시 재학생만입니다

맨 아랫줄을 조심하십시오. 10월 학평은 다시 재학생만 보는 시험이라 9월 모평보다 등급이 좋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그걸 「올랐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견주는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성적표를 받으실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이번 시험이 **학평인지 모평인지** 아는가
- ☐ 학평은 **주로 재학생** 만 본다는 것을 아는가
- ☐ 모평에는 **졸업생이 들어온다** 는 것을 아는가
- ☐ 학평 등급을 **수능 등급으로 읽고** 있지 않은가
- ☐ 수시 판단을 **6월·9월 모평** 으로 하고 있는가
- ☐ 10월 학평이 **다시 재학생만** 인 것을 아는가
- ☐ 이번 시험의 **범위** 가 어디까지인지 아는가
- ☐ 지난 시험과 **같은 조건** 인지 확인했는가

여덟째가 이 시리즈 전체의 기준입니다. 조건이 다른 두 시험을 견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3월 성적표를 들고 오시는 부모님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으로 대학을 말하는 곳도 많습니다. 3월 학평은 재학생만 보고, 배운 데까지만 나오는 시험입니다. 거기서 대학을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 성적표를 정확히 읽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37 · 자주 묻는 것

두 시험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학평 등급에서 수능은 몇 등급쯤 떨어지나요?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으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떨어지는 폭은 과목마다, 등급대마다, 해마다 다릅니다. 졸업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해마다 다릅니다.

구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 졸업생이 들어오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상위권일수록 그 영향이 큼니다 — 졸업생이 상위권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학평 2등급이니 수능도 2등급」으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6월 모평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십시오.

6월 모평이 첫 실제 자료입니다.

Q.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면 수시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수시가 더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수시에는 수능최저가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부만 보는 전형이 그것입니다.

다만 최저가 걸린 자리를 고르실 때는 모평 성적이 기준이 됩니다. 못 맞출 최저를 걸어 두면 그 장은 버리는 셈입니다.

그러니 판단은 「수시냐 정시냐」가 아니라 「최저가 있는 자리를 몇 장 쓸 것인가」입니다.

이건 따로 다른 편(B2·M6)이 있습니다. 모평 성적으로 여섯 장을 어떻게 나눌지를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학평은 재학생만, 모평은 졸업생까지 봅니다. 수시 판단은 6월·9월 모평으로 하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평가원 시행 공고와 시·도 교육청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 일정과 응시 대상은 해마다·시도마다 다르다.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도 시험마다 다르다.**

38 · 먼저 사실부터**숫자가 넷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숫자가 넷 나옵니다. 원점수 · 표준점수 · 백분위 · 등급. 네 숫자가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어느 칸을 보느냐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숫자	무엇을 말하나
원점수	맞힌 문항으로 계산한 기본 점수
표준점수	평균에서 얼마나 위인지를 점수로 바꾼 것 — 시험이 어려우면 올라간다
백분위	나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몇 %인가
등급	백분위를 아홉 칸으로 나눈 것 —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부모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대개 등급입니다. 그런데 등급은 넷 중 가장 거친 숫자입니다.

같은 등급 안에 아주 다른 학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등급만 보면 그 차이가 통째로 안 보입니다.

왜 넷이나 주는가

하나로는 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점수만 보면 시험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등급만 보면 그 안에서 어디쯤인지 모릅니다. 표준점수는 과목끼리 견주기 어렵고, 백분위는 만점 근처에서 차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넷을 함께 주고, 볼 때마다 쓰임이 다릅니다. 어느 칸을 언제 보는지 이 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적 통지 방식. 시행 일정과 응시 대상은 해마다·시도마다 다르다.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도 시험마다 다르다.

39 · 원점수와 표준점수

어려운 시험에서 갑니다

원점수는 맞힌 만큼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말합니다.

원점수 80점이 잘 본 것인지 아닌지는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아야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가 있습니다. 평균에서 얼마나 위인지를 점수로 바꾼 것 — 시험이 어려우면 올라간다

시험이	원점수	표준점수
어려웠다면	낮게 나옵니다	높게 나옵니다
쉬웠다면	높게 나옵니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떨어졌는데 표준점수는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점수가 떨어졌다」고 걱정하시는 경우 가운데 상당수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 원점수끼리 견주지 마십시오

3월과 6월의 원점수를 나란히 놓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다른 시험이니까요.

견주시려면 백분위나 등급을 보셔야 합니다. 「몇 점 올랐나」가 아니라 「어디쯤에서 어디쯤으로 갔나」입니다.

출처: 평가원 성적 산출 방식. 표준점수 산출식은 영역·과목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40 · 백분위와 등급

가장 많이 보시는 두 칸

백분위가 실제로 가장 쓸모 있는 칸입니다.

나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몇 %인가 백분위 90이면 열 명 중 아홉 명보다 잘 본 것입니다.

시험 난이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차와 견주기에 가장 낫습니다.

	백분위	등급
얼마나 참참한가	100칸	9칸
회차 비교	낫습니다	거칩니다
수시 최저	대개 안 씁니다	등급으로 걸립니다

맨 아랫줄이 등급을 봐야 하는 유일한 까닭입니다. 수시 수능최저는 등급으로 걸려 있습니다.

등급은 이렇게만 쓰십시오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를 볼 때만 등급을 보시고, 「올랐는가 내렸는가」를 볼 때는 백분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남과 견주는 것이 아니라 점수 구간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둘은 등급이 곧 실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출처: 평가원 성적 통지 방식. 영역별 평가 방식(상대·절대)은 그 해 시행 계획을 확인하십시오.

41 · 그래서 무엇을

십 분에 읽는 순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압니까
1	백분위	지금 어디쯤인가
2	지난 회차 백분위	움직였는가
3	영역별 백분위	어느 과목이 문제인가
4	등급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

3번이 실제로 가장 값이 큼니다. 총점이 비슷해도 어느 과목이 무너졌는지에 따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백분위가 가장 낮은 과목 하나를 찾으십시오. 거기가 다음 학기에 시간을 쓸 자리입니다.

성적표를 읽으실 때 여덟 가지

- ☐ 이번 시험이 **학평인지 모평인지** 아는가
- ☐ **백분위** 부터 봤는가
- ☐ 원점수끼리 **견주고 있지** 않은가
- ☐ 원점수가 떨어져도 **표준점수가 올랐는지** 봤는가
- ☐ **영역별** 로 봤는가
- ☐ 가장 낮은 **한 과목** 을 찾았는가
- ☐ 등급은 **최저 판단에만** 쓰고 있는가
- ☐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 인 것을 아는가

셋째를 특히 조심하십시오. 다른 시험의 원점수를 견주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성적표를 받으시면 **등급 칸에 먼저 눈이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 자리 숫자이고 크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등급은 백분위를 아홉 칸으로 뚫뚫그린 것이라 백분위 78과 89가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움직임을 보시려면 백분위를 보십시오 — 같은 성적표에 더 정확한 숫자가 이미 적혀 있습니다.

42 · 자주 묻는 것

성적표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등급은 그대로인데 백분위가 올랐습니다. 오른 건가요?

오른 것입니다. 등급이 거칠어서 안 보였을 뿐입니다.

등급은 백분위를 아홉 칸으로 나눈 것이라 한 칸 안에서 움직인 것은 등급으로 안 나타납니다.

백분위가 올랐다면 실제로 위치가 올라간 것이고, 그 흐름이 이어지면 등급도 곧 바뀝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등급은 그대로인데 백분위가 떨어졌다면 지금 등급의 아래쪽으로 밀린 것이라 다음에 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위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등급이 바뀌기 전에 움직임이 먼저 보입니다.

Q. 과목마다 백분위 차이가 큼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게 정상이고, 오히려 다행입니다.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가 보이니까요.

고르게 낮은 것보다 한 과목만 낮은 편이 대개 회복이 빠릅니다. 원인이 좁으니 손댈 자리도 좁습니다.

보실 것은 그 과목이 왜 낮은가입니다. 시간이 모자란 것인지, 특정 단원인지, 아예 안 한 것인지 — 세 경우의 대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시를 볼 계획이라면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보십시오. 낮은 과목의 비중이 작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다룬 편(H4)이 있습니다.

다만 수시 최저는 대개 「몇 개 영역 합」이라 낮은 과목 하나가 통째로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한 줄로 남기면

움직임은 백분위로, 최저 판단은 등급으로 보십시오. 원점수끼리 견주지 마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평가원 성적 통지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영역별 평가 방식과 성적 표기는 그 해 시행 계획에 따릅니다.

43 · 먼저 사실부터**3월은 조건이 셋이나 다릅니다**

3월 성적표를 들고 오시는 부모님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3월 학평은 수능과 조건이 셋이나 다릅니다. 응시 집단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준비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3월 학평		수능
누가 보나	재학생만	졸업생 포함
범위	배운 데까지	전 범위
준비 기간	겨울방학까지	1년 더

세 줄이 다 「3월이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3월 등급이 수능보다 좋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그걸 모르고 3월 등급으로 대학을 말하면 어긋납니다.

그런데 3월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한 해에 시험이 여럿인데 3월 성적으로 상담을 받는 집이 가장 많습니다. 새 학년의 첫 성적표이고, 그때 마음이 가장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편은 「3월을 무시하시라」가 아닙니다. 3월로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둘을 갈라 두면 3월이 훨씬 쓸모 있어집니다.

출처: 시·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안내 및 평가원 수능 시행 계획(2026년 8월 기준). 시행 일정과 응시 대상은 해마다·시도마다 다르다.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도 시험마다 다르다.

44 · 알 수 있는 것

그래도 값이 있습니다

3월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1	겨울방학의 결과	지난 겨울에 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2	과목 사이의 균형	어느 과목이 쳐지는지
3	시험을 치르는 힘	시간 배분·실수·집중
4	출발선	여기서 시작합니다

2번이 3월에서 가장 값이 큼니다. 총점보다 과목별 백분위를 보십시오. 어느 과목이 다른 과목보다 20 이상 쳐져 있으면 거기가 올해의 일입니다.

3번도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아는데 틀린 문항이 몇 개인지를 아이와 세어 보십시오.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험 치르는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그건 연습으로 빨리 회복됩니다.

1번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3월 성적은 겨울방학의 성적표입니다. 겨울에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 3월이 안 나왔다면 그 방식이 안 맞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3월에 확인하면 한 해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3월 시험의 가장 큰 쓸모라고 봅니다.

이 면의 읽는 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이며 통계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45 · 알 수 없는 것

여기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알 수 없는 것	왜
수능 등급	졸업생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대학	위와 같은 까닭
수시나 정시나	아직 이릅니다 — 6월을 보셔야 합니다
전 범위 실력	안 배운 데가 남아 있습니다

넷째 줄을 짚어 두겠습니다. 3월 시험은 **그때까지 배운 범위**에서 나옵니다. **안 배운 단원에서 무너질지는 3월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잘 봤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원이 **약한 학생**이 그렇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3월 성적으로 「이 대학은 어렵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1년이 남아 있고, 아직 안 배운 것이 있고, 견주는 사람도 바뀝니다.

반대 실수도 있습니다 — 3월에 잘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놓는 것입니다. 6월에 졸업생이 들어오면 등급이 밀립니다.

양쪽 다 「조건이 다른 시험」이라는 것을 놓친 데서 옵니다.

출처: 시·도 교육청 학력평가 안내. 시험 범위는 학년과 회차마다 다릅니다 — 그 회차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46 · 그래서 무엇을

3월에 하실 일

과목별 백분위를 나란히 적고, 가장 낮은 한 과목을 고르고, 아이와 왜 낮은지 이야기하고, 1학기에 할 일을 하나 정합니다. 다 해서 삼십 분입니다.

셋째가 이 편의 핵심입니다. 같은 낮은 점수라도 까닭이 다릅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대개는
「시간이 모자랐어요」	푸는 속도 — 연습량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초 — 돌아가야 합니다
「알았는데 틀렸어요」	시험 치르는 법 — 회복이 빠릅니다
「안 배웠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 배우면 됩니다

3월 성적표를 받으시면 여덟 가지

- ☐ 3월이 재학생만 보는 시험인 것을 아는가
- ☐ 3월이 배운 데까지만 나오는 것을 아는가
- ☐ 과목별 백분위 를 적어 봤는가
- ☐ 가장 낮은 한 과목 을 골랐는가
- ☐ 아이에게 왜 낮은지 물어봤는가
- ☐ 「아는데 틀린 문항」이 몇 개인지 세어 봤는가
- ☐ 3월 등급으로 대학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 ☐ 1학기에 할 일을 하나로 좁혔는가

여덟째를 권합니다. 세 개를 고치겠다는 계획은 대개 하나도 안 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3월 성적표는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시작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대학을 말하는 곳이 있으면 조건 셋을 물어보십시오 — 응시 집단, 범위, 남은 기간. 셋이 다 다른데 어떻게 대학을 말하는지를요.

47 · 자주 묻는 것

3월 성적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3월 성적이 1년 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흔히 도는 말이지만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조뿐입니다. 3월은 재학생만 보고 범위가 좁습니다. 6월부터 졸업생이 들어오고 범위가 넓어집니다. 조건이 바뀌니 순위도 바뀝니다.

다만 「잘 안 바뀐다」고 느껴지는 까닭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들도 같이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니 상대적 위치가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 「3월이 1년 간다」보다 「남들보다 더 해야 위치가 바뀐다」가 정확합니다.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려울 뿐이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Q. 고1 3월 성적은 어떤 뜻인가요?

고3 3월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 막 올라온 시점이고,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입니다.

이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중학교까지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1 3월에 낮게 나왔다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무엇이 비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값이 큼니다.

다만 수학이 크게 낮다면 그건 봐 두셔야 합니다. 중등 수학이 안 된 상태로 고등 수학을 하면 계속 벌어집니다. 그건 따로 다룬 편(J3·C1)이 있습니다.

고1 3월은 「확인」이고, 판단은 훨씬 뒤입니다.

덧붙이면 — 이 성적으로 학원을 바꾸실 일도 아닙니다. 겨울에 시작한 곳이라면 아직 두세 달치이고, 바꾸면 적응에 다시 몇 달이 듭니다. 한 학기는 보시고 정하시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3월로 알 수 있는 것은 겨울방학의 결과와 과목 사이의 균형입니다. 수능 등급과 대학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시행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읽는 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시험 범위와 응시 대상은 회차마다 다릅니다.

48 · 먼저 사실부터**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6월 모평이 한 해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 내는 곳이 바뀌고, 보는 사람이 바뀝니다.

	3월 학평	6월 모평
내는 곳	시·도 교육청	평가원 — 수능과 같습니다
보는 사람	재학생	졸업생도
범위	배운 데까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6월에 등급이 밀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력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6월 성적표를 보면 크게 흔들리십니다. 매년 6월에 상담이 몰리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6월을 봐야 하는 까닭

3월까지의 「우리끼리」 본 성적이었습시다. 6월에 처음으로 수능과 비슷한 집단에서 재 봅니다.

그러니 6월이 아픈 만큼 정확합니다. 3월 성적으로 세운 계획은 대개 낙관적이고, 6월에 그 계획을 고치게 됩니다.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이 한 해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시행 공고(2026년 8월 기준). 시행 일정과 응시 대상은 해마다·시도마다 다르다.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도 시험마다 다르다.

49 · 무엇이 달라지나

견주는 집단이 바뀝니다

졸업생이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졸업생은	어떤 집단인가
준비 기간	1년을 더 했습니다
전 범위	다 배웠습니다
목표	대개 더 나은 대학을 노립니다

셋째 줄이 중요합니다. 졸업생은 고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위권에 더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일수록 6월에 더 크게 밀립니다. 중하위권은 상대적으로 덜 밀립니다.

이건 저희 관찰이고 해마다 다릅니다. 「몇 등급 밀린다」는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넓어집니다

6월은 3월보다 넓지만 아직 전 범위는 아닙니다. 9월이 전 범위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 6월에서 9월로 갈 때 또 한 번 조건이 바뀝니다. 6월과 9월을 견주실 때도 그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출처: 평가원 시행 공고. 응시 집단의 분포에 대한 부분은 저희 관찰이며 확정된 통계가 아닙니다. 범위는 회차마다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50 · 9월

원서 직전의 마지막 자료

9월 모평은 수시 원서를 내기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자료입니다.

시기	무슨 일이 있나
9월 초	모평
9월 중순	수시 원서 접수
9월 말 ~10월	모평 성적표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성적표가 원서 접수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채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험 본 날 저녁에 채점하고 등급을 짐작해 두십시오.

9월을 어떻게 쓸 것인가

수시 여섯 장에 최저를 몇 개 걸 것인가를 여기서 정합니다.

9월이 이렇다면	여섯 장을
최저를 넉넉히 넘겼다면	최저 있는 자리를 더 써도 됩니다
아슬아슬하다면	최저 없는 자리를 씁니다
많이 모자란다면	최저 있는 자리는 줄입니다

이게 9월 모평의 실제 쓸모입니다. 「대학을 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원서를 나누는 자료」입니다.

출처: 평가원 시행 공고 및 대학별 수시 일정. 성적 통지일과 원서 접수일은 해마다 다릅니다 — 그 해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51 · 그래서 무엇을

6월과 9월을 쓰는 법

시기	무엇을 정하나
6월 뒤	수시와 정시의 무게를 잡습니다
여름	부족한 과목을 메웁니다
9월 당일	가채점으로 최저 가능성을 봅니다
9월 원서	여섯 장의 최저 배분을 정합니다

첫째 줄이 한 해의 가장 큰 판단입니다. 6월 성적이 내신보다 좋으면 정시 쪽 무게를 늘리고, 내신이 더 좋으면 수시 쪽입니다.

다만 6월 한 번으로 정하지는 마십시오. 9월까지 보고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6월·9월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6월에 졸업생이 들어온다 는 것을 아는가
- ☐ 6월에 밀린 것을 실력 저하로 읽고 있지 않은가
- ☐ 과목별 백분위 를 3월과 견줘 보는가
- ☐ 여름에 메울 과목 하나 를 정했는가
- ☐ 9월 가채점 을 할 계획인가
- ☐ 지원할 자리의 최저 조건 을 적어 두었는가
- ☐ 최저 없는 자리 를 몇 장 넣을지 정했는가
- ☐ 수시·정시 무게를 9월까지 보고 정하기로 했는가

다섯째를 꼭 하십시오. 성적표가 원서 접수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채점이 없으면 짐작으로 원서를 쓰게 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6월 성적표를 받고 오시는 부모님이 한 해 중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많이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졸업생이 들어와서 밀린 것인데, 그걸 모르고 아이를 다그치는 일이 매년 있습니다. 3월과 6월은 견줄 수 없는 시험입니다 — 이 한 줄만 아셔도 6월이 훨씬 덜 아픕니다.

52 · 자주 묻는 것

6월·9월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6월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먼저 「떨어졌다」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말인지 보십시오.

3월과 견주신 것이라면 그건 견줄 수 없는 두 시험입니다. 졸업생이 들어왔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밀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단하실 자리는 과목별 백분위의 모양입니다. 모든 과목이 고르게 밀렸다면 그건 집단이 바뀐 영향이 큼니다. 한 과목만 크게 무너졌다면 그건 그 과목의 문제입니다.

앞이면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뒤면 여름에 손대실 자리입니다.

그리고 6월은 아직 이릅니다. 수능까지 다섯 달이 남아 있고, 9월에 한 번 더 봅니다.

Q. 9월 모평을 안 보는 게 나을까요?

보시는 편을 권합니다. 수시 원서를 나누는 데 쓸 마지막 자료입니다.

「떨어지면 마음만 상한다」고 안 보시려는 경우가 있는데, 안 보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짐작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섯 장을 감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9월은 수능과 조건이 가장 가까운 시험입니다. 시험장에서 시간을 어떻게 쓸지 연습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결과에 크게 흔들리는 아이라면 성적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이야기해 두십시오. 「이건 연습이고 여기서 고칠 것을 찾는 것」이라고요.

보되 무겁게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6월은 건주는 집단이 바뀌는 자리이고, 9월은 여섯 장을 나누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평가원 시행 공고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과 범위는 해마다 다릅니다. 응시 집단 분포에 대한 부분은 저희 관찰입니다.

53 · 먼저 사실부터**견줄 수 있는 것만 견주십시오**

성적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아는 것이 한 해 동안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 회차마다 조건이 달라서 그냥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견줄 수 있는 것	견줄 수 없는 것
같은 종류의 시험끼리 학평은 학평과, 모평은 모평과	학평과 모평
백분위	원점수
과목별 위치	총점

첫째 줄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3월(학평)과 6월(모평)을 나란히 놓는 것은 다른 시험 두 개를 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줄 — 원점수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 통째로 움직입니다. 같은 실력에서도 20점이 오르내립니다.

출처: 평가원 성적 산출 방식 및 시행 안내(2026년 8월 기준). 시행 일정과 응시 대상은 해마다·시도마다 다르다.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도 시험마다 다르다.

54 · 한 번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

세 번을 보십시오

한 회차만 보면 거의 언제나 잘못 읽습니다. 시험마다 흔들리는 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양이면	어떻게 읽나
한 번만 똑 떨어졌다	그 시험의 일일 가능성이 큼니다
두 번 이어서 떨어졌다	봐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 이어서 떨어졌다	고쳐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한다	불안정 — 대개 시험 치르는 법입니다

맨 아랫줄이 뜻밖으로 흔합니다. 실력은 있는데 회차마다 크게 흔들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건 실력보다 조건에 좌우되는 상태입니다 — 컨디션, 첫 문제, 시간 배분, 긴장. 공부량을 늘려도 잘 안 잡히고, 연습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드십시오

회차마다 과목별 백분위를 한 줄씩 적는 표입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세 번쯤 쌓이면 모양이 보입니다. 한 번 볼 때는 안 보이던 것이 표에서는 보입니다.

이 면의 읽는 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이며 통계로 확인된 기준이 아닙니다.

55 · 흔한 오해 넷

이렇게 읽지 마십시오

이런 판단	왜 어긋나나
「점수가 20점 떨어졌다」	시험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 백분위를 보십시오
「6월에 등급이 밀렸다」	졸업생이 들어왔습니다
「10월에 다시 올랐다」	다시 재학생만 봅니다
「한 과목이 무너졌다」	그 과목의 범위가 새로 나왔을 수 있습니다

넷 다 「조건이 바뀐 것」을 「실력이 바뀐 것」으로 읽은 것입니다.

맨 아랫줄을 짚어 두겠습니다

모의고사는 회차마다 범위가 넓어집니다. 새로 들어온 단원에서 무너지면 그 과목 전체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니 「이 과목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나온 단원이 안 됐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답을 봐야 압니다. 어느 단원에서 틀렸는지를 세어 보시면 갈립니다.

그리고 「올랐다」도 조심하십시오

떨어진 것만 조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른 것도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10월 학평에서 올랐다고 안심하시면 수능에서 다시 밀립니다. 10월은 재학생만 보는 시험이니까요.

출처: 시행 안내 및 평가원 성적 산출 방식. 회차별 범위는 그 회차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56 · 그래서 무엇을

표 한 장과 점검표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회차마다 한 줄입니다.

회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3월 학평				
6월 모평				
9월 모평				

백분위를 적으십시오. 등급이나 원점수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학평은 학평끼리, 모평은 모평끼리** 보십시오.

성적이 움직였을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견주는 두 시험이 **같은 종류** 인가

☐ **백분위** 로 견주고 있는가

☐ **과목별** 로 봤는가

☐ 이번 회차에 **새로 나온 범위** 가 있는가

☐ 오답이 **어느 단위** 에 몰려 있는가

☐ **몇 번 이어서** 그런지 봤는가

☐ 「아는데 틀린」 문항이 **늘었는지** 봤는가

☐ 옳은 것도 **조건을 확인** 했는가

여섯째가 이 편의 전부입니다. 한 번은 신호가 아니고, 세 번은 신호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성적이 떨어진 날 **그날 저녁에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도 이미 알고 있고, 그날은 가장 아픈 날입니다. 며칠 두었다가 표를 놓고 보십시오. 표를 보면 감정이 아니라 모양을 보게 되고, 대개는 생각보다 덜 나쁩니다.

57 · 자주 묻는 것

성적 변화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계속 떨어집니다.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세 가지를 순서로 보십시오.

하나 — 같은 종류의 시험끼리 견주고 있는지. 학평과 모평을 섞어 보고 계시면 **먼저 갈라 보십시오.** 갈라 놓으면 안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둘 — 전 과목인지 한 과목인지. 전 과목이 고르게 밀린 것이면 **집단이 바뀐 영향**이 큼니다. 한 과목이면 **그 과목의 문제**입니다.

셋 — 오답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새 단원이면 **안 배운 것**이고, 전에 하던 단원이면 **잊은 것**이고, 고르게 흩어져 있으면 **시간이나 집중**입니다.

셋이 다 다른 일이라 어느 것인지 알기 전에는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Q. 아이가 성적표를 안 보여 줍니다.

흔한 일이고, 대개 까닭이 있습니다.

보여 준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적표가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추궁의 시작이었다면 아이는 안 보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못 보셔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과목이 제일 아쉬웠어?」는 숫자를 안 봐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본 느낌입니다. 그것부터 들으시면 숫자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적표는 학교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받아서 보시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내놓게 하는 편이 오래 갑니다.

한 줄로 남기면
같은 종류의 시험끼리, 백분위로, 과목별로 보십시오. 한 번은 신호가 아니고 세 번은 신호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시행 안내와 저희 상담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아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8 · 먼저 사실부터

둘이 다른 것이 보통입니다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가 안 나오거나, 그 반대인 아이가 많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재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신	모의고사
견주는 사람	같은 학교 학생	전국
범위	한 학기 정해진 범위	누적 — 넓습니다
준비 기간	몇 주	3년
무엇이 통하나	성실함과 반복	이해와 응용

넷째 줄이 이 차이의 뿌리입니다. 범위가 좁고 기간이 짧으면 반복이 통합니다.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길면 반복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형」과 「모의고사형」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둘 다 실력이고, 다만 다른 실력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및 평가원 시행 안내(2026년 8월 기준). 유형 구분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온 것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59 · 그래서 어디로

전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제도가 둘을 갈라 두었습니다. 내신을 보는 문과 시험으로 뽑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이 문이 맞습니다
내신이 좋다	학생부교과 · 학생부종합
모의고사가 좋다	정시 · 논술
둘 다 좋다	다 됩니다 — 최저 있는 자리가 유리합니다
둘 다 아쉽다	최저 없는 자리를 찾습니다

맨 아랫줄에 길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7 수시 요강 6,482줄을 센 바로는 수능최저가 걸린 줄이 2,971줄로 46%였습니다.

뒤집으면 절반이 넘는 자리에 최저가 없습니다. 모의고사가 안 나와도 쓸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의 뜻

둘 다 되는 아이가 가장 유리한 까닭은 최저가 걸린 자리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가 있는 자리는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 최저를 못 맞춰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있습니다.그래서 같은 대학·학과라도 최저 있는 전형이 합격선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 집계. 합격선 경향에 대한 부분은 구조에서 짐작한 저희 판단입니다.

60 · 언제 정하나

6월과 9월

「수시나 정시나」를 언제 정할 것인가가 실제 물음입니다.

시기	무엇을 알 수 있나	정할 것
3월	거의 없습니다	정하지 마십시오
6월	졸업생이 들어온 첫 성적	무게를 잡습니다
9월	원서 직전 마지막	여섯 장을 나눕니다

6월에 「잡는다」는 것은 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쪽에 시간을 더 쓸지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둘 다 하게 됩니다. 수시 원서를 내고도 수능을 보고, 최저가 걸려 있으면 수능이 필요합니다.

내신이 이미 정해진 경우

고3 1학기가 끝나면 내신은 사실상 정해집니다. 더 올릴 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3 여름부터는 수능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시로 툰다」는 뜻은 아닙니다 — 수시 최저를 맞추는 데도 수능이 필요합니다.

정시 쪽 숫자를 함께 보시면, 2026학년도 정시는 42,919명 모집에 충원을 중앙값 42%였습니다. 수시(67,153명)보다 자리가 적습니다.

출처: 2026학년도 정시·수시 모집인원 및 전형결과 집계. 충원 0명인 줄을 빼면 중앙값이 42%→69%로 부푼다. 0은 falsy라 실수하기 쉽다.

61 · 그래서 무엇을

여섯 장을 나누는 법

9월 뒤에 하실 일은 여섯 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9월 성적이	여섯 장 배분
최저를 넉넉히 넘겼다	최저 있는 자리를 많이 — 경쟁이 덜합니다
아슬아슬하다	쉬웁니다 — 최저 없는 자리를 두세 장
못 맞춘다	최저 없는 자리 위주로

참고로 최저 문장의 생김새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센 바로는 「**몇 개 영역 등급 합**」 끝이 2,751줄로 대부분이고, 영역을 두 개 보는 자리가 1,844줄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개 영역이면 잘하는 과목 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전 과목을 다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수시·정시를 나눌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내신과 모의고사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아는가
- ☐ 3월 성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가
- ☐ **6월 모평** 을 보고 무게를 잡았는가
- ☐ 지원할 자리의 **최저 조건** 을 적어 두었는가
- ☐ 최저가 **몇 개 영역** 인지 봤는가
- ☐ **최저 없는 자리** 를 몇 장 넣을지 정했는가
- ☐ 수시를 써도 **수능은 봐야 한다** 는 것을 아는가
- ☐ 정시 자리가 **수시보다 적다** 는 것을 아는가

일곱째를 짚어 두겠습니다. 수시에 붙어도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집니다. 수시를 쓴다고 수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우리 아이는 내신형이라 정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고3 여름까지는 그 말이 이르다고 봅니다. 내신은 3년에 걸쳐 쌓인 것이라 바꾸기 어렵지만, 수능 성적은 마지막 반년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 안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6월과 9월을 보고 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62 · 자주 묻는 것

수시와 정시 판단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내신이 나쁩니다. 수시는 접어야 하나요?

접지 마십시오. 수시가 내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부교과는 내신이 중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은 학생부 전체를 읽고, **논술**은 시험으로 뽑습니다.

저희가 입결을 켜 바로는 **같은 학과에서 학종의 합격선이 교과보다 낮은 경우가 87%**였습니다. 내신이 아쉬우면 **학종 쪽에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학종은 학생부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신이 아쉬운데 학생부도 비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신이 나쁘다」가 아니라 「학생부에 무엇이 있나」를 보십시오. 그건 L 시리즈에서 다뤘습니다.

Q. 둘 다 아쉬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가장 답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갈 수 있는 곳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셔도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에 남은 기간에 어느 쪽이 더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신은 남은 학기가 있어야 움직이고, 수능은 남은 달이 있으면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고2라면 둘 다 시간이 있습니다. 고3 여름이라면 수능 쪽이 유일하게 남은 변수입니다.

그리고 **최저 없는 자리**를 찾아 두십시오. 요강 6,482줄 가운데 절반이 넘는 자리에 최저가 없습니다. 거기서 여섯 장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내신과 모의고사가 다른 것은 **재는 것이 달라서**입니다. **3월에 정하지 마시고, 6월에 무게를 잡고, 9월에 여섯 장을 나누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요강·입결 집계와 시행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학과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

63 · 달으며**한 줄로 남기면**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전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고1에 바뀌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견주는 사람입니다. 3월에 판단하지 마시고 5월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적힌 것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요강을 읽는 일, 달력에 날짜를 찍는 일, 등급을 다시 계산해 보는 일 — 대부분 집에서 하실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해 보신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으실 때, 그때 저희를 찾아 주십시오. **그런 질문에는 저희가 값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인쇄하셔도 되고, 파일로 보내셔도 되고, 학교나 모임에서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같은 시기를 지나는 다른 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고르게 퍼지는 것이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입시CUBE

이 책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학교·대학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대학의 최신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책은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